

계룡산국립공원에서의 이용객 행태와 이용 및 관리속성에 대한 이용객 태도

Visitors'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to Park Use and Management Attributes in Kyeryongsan National Park, Korea

상지대학교 경상대학 관광학부*

밀양대학교 조경학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유기준* · 김동필** · 김용근***

I.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이 첫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국토의 4.5%에 이르는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한국의 국립공원은 국가의 중요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여를 하였으며 또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립공원은 다른 관광지와는 달리 관광·휴양기회 제공 기능과 더불어 자연생태계 가치의 보전이라는 중요한 관리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국립공원은 국가의 자연자원의 보전적 가치와 관광·휴양적 가치라는 상반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상반된 가치로 인해 국립공원 관리에 어려움이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립공원은 국민의 관광·휴양적 상품가치 때문에 각광을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이용을 초래하였고, 이용에 따른 자연생태계 훼손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는 자연자원이나 이용시설 등의 물리적 자원을 중심으로 공원관리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연자원에 대한 훼손이나 시설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용객의 이용에 따른 상대적 문제이므로 국립공원의 이용주체인 이용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배제된 상태에서 보전과 이용의 효율적 조화라는 국립공원의 관리목표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효율적인 국립공원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이용객 이해에 대한 중요성 인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계획되었으며 계룡산국립공원이 연구사례 대상지로서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룡산국립공원을 방문한 이용객들의 전반적인 이용행태, 이용만족도, 그리고 이용 및 관리 관련 속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원관리방안 수립에 기초적인 이용객 관련 자료의 제공에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계룡산국립공원의 동학사, 갑사, 그리고 신원사 지역에서 계룡산국립공원을 방문하고 귀가하는 이용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는 2000년 7월 27일부터 2000년 7월 29일까지 응답자들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지역별 방문현황 등을 고려하여 총 332매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부실한 설문지 16매를 폐기하고 316매를 유효표본으로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이용객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환경 및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이용행태, 공원내에서의 경험, 종합적인 만족도 그리고 이용과 관리 관련 속성들에 대한 심각성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현장에서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환경 및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대다수 응답자(81.3%)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나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행동은 높은 관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48.4%)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41.1%의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이용과 보전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36.4%의 응답자들은 국립공원

은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2. 전반적인 이용행태

계룡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주된 목적은 휴식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캠핑, 등산 등의 휴양활동 목적이 22.8%를 보였다. 반면에 자연 경관 감상 목적의 방문이 13.6%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동반유형은 가족동반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와 함께 온 경우가 34.8%로 나타났다. 이것은 친구나 직장동료 동반유형이 주종을 이룬 다른 국립공원 조사(조재창과 오구균, 1991; 이경재 등, 1992; 김용근, 1993; 유기준과 김용근, 2000)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오대산(김용근 등, 1996), 주왕산(김용근과 최성식, 1995), 덕유산국립공원(김용근과 최성식, 1994)에서의 조사결과와는 유사한 동반자 유형을 보여 접근성, 구성 자원 및 시설 등에 따른 유형의 차이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90.8%) 우리나라 타 국립공원을 방문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전체 응답자의 66.5%가 이미 계룡산국립공원을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재방문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2.0%가 계룡산국립공원을 목적지로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2.9%의 응답자들은 여행경유지로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응답자(48.1%)들이 주로 계곡주변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등산로 주변(29.1%)과 사찰 주변(12.0%)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공원내 이용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국립공원에서 이용객들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여 공원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이용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적지에서 이용정보의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계룡산국립공원에 도착하여 이용객들이 주로 접한 이용 관련 정보원천으로서는 관광안내판(35.8%)과 이정표(31.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내팸플렛 또는 공원관리자로부터의 안내를 접한 응답자는 각각 5.1%와 2.8%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비지터센터나 기타 안

내소를 이용한 응답자가 0.9%에 불과해 비지터센터 및 공원관리자의 정보제공과 안내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룡산국립공원에 도착해서 느낀 혼잡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혼잡하지 않다」 또는 「전혀 혼잡하지 않다」고 느낀 응답자 비율이 52.5%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자도 32.6%로 조사되어 계룡산국립공원에서의 혼잡의 정도는 대체로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활동장소에 따른 혼잡정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들의 휴양활동 장소에 따라 느끼는 혼잡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가 밀집지역인 집단시설지구, 등산로, 사찰주변 등에 비해 계곡 주변에서의 이용객들이 혼잡의 정도를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계룡산국립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용규제 및 행위제한에 따른 이용객들의 휴양활동에의 영향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3.8%가 그들의 휴양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비율은 25.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계룡산국립공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용규제 및 행위제한에 관련된 관리방안 적용수준은 이용객들에게 그다지 저항감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중 53.8%가 목적지에서 그들의 휴양경험에 대해 대체적인 만족감(척도상 4점 이상)을 나타냈으며 7.1%만이 불만족 수준(척도상 2점 이하)으로 표시하였다. 응답자들의 전체적인 만족도 수준은 5점척도상 3.49로 나타나 보통수준에서 대체로 만족하는 범위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용 및 관리속성에 대한 태도

국립공원 이용객들의 휴양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용과 관리에 관련된 15개 속성들을 추출하여 계룡산국립공원 현지에서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응답자 평가는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